

# 전북 문화유산 위상 높인다

### 전북도, 유형문화재 5건 신규 지정 예고

### 소모사실·익산 관음사 묘법연화경·남원 용담사 석등 전주 삼경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완주 구룡암 사범어

전북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7차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기록인 '소모사실'을 비롯한 5건의 유형문화재가 문화재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모사실'은 1894년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김산(崙山: 김천의 소모사로 임명한 조시영이 김산 소모영의 각종 문서를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편찬한 자료이다.

'소모사실'은 조시영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직접 목격하고 보고받은 다양한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회상과 조선 정부의 대응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훼손이 거의 없는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 사료적·문화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동학농민군의 주요 지도자인 전봉준, 김개남이 김산도의 동학농민군과 활발하게 연계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소모사실과 함께 익산 관음사 묘법연화경, 남원 용담사 석등, 전주 삼경사 목조아

미타여래좌상, 완주 구룡암 사범어 문화재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

익산 관음사 묘법연화경은 전라관찰사를 역임한 성달생이 전라도 고산 화암사에서 1443년 선친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간행한 묘법연화경의 1477년 복각본을 1561년 경상도 풍기 회방사에서 다시 판각한 것이다.

관음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15세기 후반 호남 지역에서 간행된 불경을 저본으로 16세기 다시 간행된 것으로서 전 7권이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남원시 용담사 석등은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보물 제42호) 및 용담사 칠층석탑(전북도 유형문화재 11호)과 함께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석등이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 팔각 간주석 석등의 전형적 양식을 계승하였으며 전체적인 원형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고 고려시대 석조 미술의 장중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 삼경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신체 비례와 안정감을 갖추고 있는 불상이다.

조선 후기불상의 전형적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었으며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완주 구룡암이 소장하고 있는 사범어는 고승 4인의 법어를 1562년 간행한 언해본으로서 현존하는 유일한 판본이다.

전체적인 내용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 불경 언해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16세기 중세국어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전북도 문화유산의 가치가 공인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모사실의 지정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라북도가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 이후 첫번째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를 문화재로 지정할 사례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지만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등 도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의 사실성, 보존시급성, 역사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문화재(사적) 승격 지정 및 도 문화재 지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이낙연 총리 "日, 사태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해결책 찾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여기저기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여기서 일본 정부에 말한다.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외교적 협의를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며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가 패러야 뻔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었다"며 "그 연계를 흐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 그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상황을 살피면서 주로 산업적 대응을 공유할 것"이라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말 벤처기업이 3만7000개로 늘고, 벤처 투자액이 3조4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시설이나 자금 부족으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출하는 길을 열어드리는 방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 이천년 가야의 한 푸는 자전거무사의 '가야유산 잇기'

### 오늘 남원 성내마을서 가야잇기 자전거대회 출정식 영호남 10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166km 홍보 대장정

잊혀진 역사로 기억하는 가야가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전북도(지사 송하진)는 오늘 남원 유곡리와 두라리 유적이 있는 성내마을에서 국립박물관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가야잇기 자전거대회' 출정식을 연다. 출정식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이 주관하고 전북도와 남원시가 협력하여 추진한다.

25일에는 영남권 출정식이 경남 김해에서 열린 바 있다.

자전거 대회는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의 실천 방안의 하나로 영호남 화합을 다지는 장이며 상징이다. 또한 오는 12월 3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가야본성 - 칼과 현의 성공과 2021년 국립 유곡리와 두라리 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미산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함천 옥전 고분군의 가야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홍보 행사다.

이천년 가야의 한을 푸는 300여 자전거무사의 '가야유산 잇기'는 경남 김해를 출발한 팀은 함안, 창녕, 함천을 거쳐 서진하고, 전북 남원을 출발한 팀은 함양, 거창, 함천을 거쳐 동진하여 총 166km를 달려 경북 고령에서 합류하여 해단식을 갖는다. 이는 1600여 년 전 이루지 못했던

가야의 통일과, 가야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기원하기 위해 영호남이 하나로 되는 시간과 공간이 될 것이다. 출정식은 주관 기관인 국립박물관 관계자,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윤열수 한국박물관협회장, 전북가야지킴이,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남원 유곡리와 두라리유적에서 도경계인 함양 매치마을까지 3.5km 자전거 행진을 한다.

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가야잇기 자전거대회를 계기로 남원 유곡리와 두라리 고분 등 전북 동부지역에 분포한 전북 가야사와 영남지역에 분포한 가야사가 하나로 연구되고, 정체성이 통일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가야사가 우리 역사에서 바로 실 수 있도록 전북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호우 국민행동요령 숙지 당부

전북도는 25일 새벽 2시 10분부터 5시 사이에 3개 시군(순창, 진안, 장수)에 호우주의보가 번갈아 가며 내렸으며, 이번 호우로 인한 도내 평균 강수량은 25.0mm이고, 최고 강수량은 진안 주천 69.5mm, 순창 북흥 46.0mm, 익산 여산에 26.5mm로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곳도 있지만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전북에 내려졌던 호우 주의보는 25일 오전 5시를 기해 모두 해제되었다.

하지만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해상에 다시 동서로 비 구름대가 산발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27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으며, 예상강수량은 많게는 70mm까지 예상되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전북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호우 특보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관리를 유지한다. 한편, 연이은 호우와 장맛비로 지반

이 약화된 상태에서 추가로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 등 붕괴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전예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군산의 여객선 항로 중 여청도 항로는 안개로 인하여 12시까지 출항 통제 예정이며, 그 외 항로는 정상운항 예정이므로,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전에 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들에게 호우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 있는지 주변을 확인하여 피해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주길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군산항 이용 중국관광객 적극 유치

### 특수목적 여행상품 집중 홍보

전북도는 올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연계한 전북특수목적 여행상품을 집중 홍보해 7월과 8월 중에 석도~군산항을 이용 중국관광객이 대거 몰려온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태권도, 전통공연, 음식, 방송 등과 관광지를 연계한 특수목적여행상품(ST)을 2014년부터 집중홍보하고 있고, 특히 중국 석도~군산항을 연계하여 매년 대규모의 목적형 중국관광객을 전라북도로 적극 유치하고 있다.

태권도 성지인 태권도원(무주)과 연계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전북 특수목적여행상품(ST)사업 위탁사, 전북도 전담여행사, 전주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중국관광객 6100

여명 유치가 확정되었다.

먼저, 2019 글로벌 무술문화교류축제가 열리는 8월 2일부터 6일까지 중국 산둥성과 광둥성, 대만 등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 경연교류 및 태권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어 8월 5일부터 8일까지 전주대학교에서 열리는 한·중 태권도행사는 중국측 태권도 관계자 등 800여명이 6일 태권체조 및 품새 등 태권도 교류행사를 갖고 이후 8일까지 도내 주요관광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한중태권도 부대행사로 열리는 국제문화교류행사에는 12개국 7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세계문화체험, 한·미음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도내 학생들과의 교류 행사를 희

망하는 중국 청소년 문화예술교류단은 지난 7월 11일부터 매주 1~2회 군산항을 통해 방문하여 8월 25일까지 총 18회 3400여명이 군산항을 통해 단계적으로 방문한다. 문화예술 공연, 한국 전통문화 체험, 도내 방송국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전주, 군산, 완주 일원에서 중국 청소년 등 200여명이 참가하는 공연 및 시예교류, 케이팝(K-POP) 체험 등으로 구성된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행사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며 이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전북도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특수목적여행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도내 체류형 외래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등 전북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